

• 6강 영원을 갈망하는 믿음의 본질 (고후 5:1~10)

(읽을 말씀 5:1~7)

오늘의 포인트

-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?
- 감각적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?
- 현재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영원을 갈망하게 하는 믿음을 이해하기

본문 이전의 이야기

-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끌려가는 포로라고 소개했고 그 행진의 끝에 자신은 죽을 것을 암시했다.
- 이어서 자신이 가진 사역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,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했다.
-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었다.
- 이제 사도는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. 이로써 사도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자신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린도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.

본문의 개요

1~5절

- 죽음 너머에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
- 너무나도 큰 그 갈망 때문에 현재의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는 바울 사도

6~10절

- 미래에 대한 확신의 결과로 주어진 사도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과 목표

미래를 향한 탄식(5:1~5)

바울 사도의 전제

(5:1a) “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**장막 집**이 무너지면”

→ “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육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”

→ “내가 지금은 건강해도 언젠가 머잖아 죽게 되면”

‘장막 집’ = 임시거처 = 육신의 생명

(5:1b) “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”

→ “나는 그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.”

→ “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” = 부활의 몸

바울 사도의 탄식(2,4)

(5:2,4) “참으로 우리가 **여기 있어 탄식하며**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 하노라...참으로 **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**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”

장막에 사는 자의 탄식

‘여기 있어 탄식하며’ (2) = ‘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’(4)

탄식의 이유

- 너무나 심한 고생 때문에 하는 고난과 죽음의 신음이 아니다
- 갈망 때문이다!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이다.
- 이 탄식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이며 참된 믿음의 특징이다.
 - 아브라함(히 11:8~16)
 - 사도 베드로
 - 사도 요한
- 세례—그리스도와의 연합--를 통해 시작된 신자의 공식적 삶은 부활의 날에 완성된다. 불안전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구원의 완성을 탄식으로 기다린다(롬 8:23).
-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탄식도 없다.
-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.
-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는 사람들은(고후 3:18; 4:6) 온갖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완성의 날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탄식한다.

바울 사도의 두려움(3)

(5:3)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

- ‘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’의 의미
 - 사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한다. ‘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’는 표현은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음으로써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.
 -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증거

(5:4)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

- ‘덧입고자 함’, ‘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됨’ = 죽기 전에 재림을 볼 것

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

(5:10)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

-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 =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
- 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가?
 -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날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회파람을 불면서 그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.
 - 선악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은 마땅히 두려운 일이다.
 -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.
 - 불신자들은 그 심판대를 전혀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.
- ‘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.’

- 성도는 그날에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,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?

미래 영광의 보증, 성령님

(5:5)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

- 보증 = 계약금, 선불금
-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완성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
- 죄인이 거듭날 때, 성령님은 신자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미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탄식하게 하신다.

미래 확신의 결과: 바울의 삶의 방식과 목표(5:6~10)

믿음 = '바라는 것들의 실상'(히 11:1)

바울 사도에게 미래는 눈으로 보는 현재 만큼 분명한 것이었고, 그것이 탄식으로 표현되었다.

미래 영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사도의 삶의 방식과 원칙 그리고 목표를 확정해 주었다.

예/ 주식 투자, 투기?

100% 확실하다고 느낄 때,

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에 덧칠을 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.

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, 흔들리지 않는 열망과 확신을 '담대하여'(6,8절) 라는 말로 거듭 표현한다.

(5:6,8)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

원칙1: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(5:7).

(5:7)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

- '보는 것' = 지상의 장막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
- 현재의 고난이 전부인 것 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살지 않겠다.
- 나의 현재에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.
- 궁극적인 실재는 현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노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다.

(5:6)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

- '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'
 - 지금이 좋아도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와는 비교할 수 없다.
 -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현재가 너무나 좋았고 풍성하다고 여겨졌기에 미래의 영광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.
 -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영적 은사들로 인하여 이미 자기들은 다가올 시대의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.
 -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고, 자기들은 너무나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는 거짓 사도들의 승리주의적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태도였다.

• **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보는 것은 우리의 가치나 열망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.**

-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다.
-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, 예수 믿은 후에는 믿음으로 즉 보이지 않는 것--장래의 영광--에 생명을 걸고 살게 된다.
- 이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신앙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고 진정한 변화다.

원칙2: 나의 열망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(5:8~9).

(5:8~9)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

- 6,7절에서 말한 것을 8,9절에서 풀어서 반복한다.
- 사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망, 인생 최고의 열망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건다.
- 사도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였다.
- 사도가 원하는 것은 ‘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’이다(8).
- 사도는 모두 다 ‘반드시’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안다(10).

(5:10)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

- 그러기에 사도는 더욱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고 말한다.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. ‘벗었다’는 말은(3) 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입어야 한다(롬 13:11~14).
- 본문 전체의 요점은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바울 사도의 열망을 보여준다.

교훈들

이상은 바울 사도의 독백이 아니라, 이 세상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고린도교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.

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원을 갈망하고, 영원을 갈망하는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.

- 예수님을 믿는 것 = 하나님을 아는 것 = (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)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
-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
 - 위선과 거짓으로 인도하기 쉽다.
 - 영원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.
 - 내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.
- 현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불을 붙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다.
- 하나님의 임재를 맛봄으로써 촉진되며, 미래에 초점을 맞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가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한다.

현재의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

- 현재 중심의 문화
 - 현실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가정 없이도 만족스럽게 설명되고 다루어질 수 있는 세계라고 믿게끔 습관화된 사고방식
 - 그 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달을 살아가는 월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.

세상의 이류 행복에 너무 배불러서 영적 배고픔이 없는 우리들

- 영적 배고픔을 느끼게 할 만큼의 영적 운동량이 없는 삶--운동 이후의 허기를 느끼는 일이 거의 없다.
- 일류의 행복은 미래의 영광과 관련된 바,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만, 현실의 이류 행복에 배 불러 영적 허기를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
- 잘 먹고 후식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다.
- 이런 현실에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.
- 이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였다.

천국을 세상 이류 행복 수준의 최상급 언어로 설명하는 우리들

- 천국을 세상 이류 행복 수준의 최상급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치다.
 - “천국에는 최상의 골프 코스가 있습니다.”
 - “천국에서는 콜레스테롤 염려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.”
-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다.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모든 시도는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것들이다.

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알지 못함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들

- 하나님에 대해 소경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.
-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모른다는 사실을 은연 중에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?
-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욱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갈망하는 나머지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.

현대의 진보적 세계관이 영원을 갈망하는 믿음을 질식시킨다.

세상 문명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.

가능한 건강하고 부유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는 미래의 실재를 보지 못하게 한다.

이런 사회는 은퇴적금과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으로 미래는 대비하지만, 진정한 실재인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.

믿음으로 산다는 것

(5:7)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

-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.
-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에 기초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.

믿음과 행위의 관계

- 우리는 '믿음으로' 구원을 받는다.

(5:10)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

- 하지만 우리는 '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' 심판대에 서게 된다.
- 참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고, 10절에서 말하는 '행위'는 믿음이 만들어낸, 믿음 때문에 하게 된, 믿음이 원인이 되는 순종의 행위를 가리킨다.

하나님을 믿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,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?

- 참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.
- 믿음 만큼 순종한다.

십계명: 명령은 약속을 전제한다.

- 모든 하나님의 율법 명령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.
- 제일계명: “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” → ‘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너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것이고, 구원하실 것이고, 책임지실 것이니 오직 나만을 신뢰하여라’
- 제십계명: “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” → ‘내가 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줄테니 나를 신뢰하여라’
- 순종의 전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다.
- 약속은 믿음을 요구하고 이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가져온다.

믿음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,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다.

(4:16)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

하나님의 약속—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.

성령님은 미래 영광의 약속의 보증이시다.

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을 때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.

이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다.

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,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.

오늘의 적용

-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사는 것은 불신앙의 삶이다. 믿음으로 장래의 영광과 영원을 갈망하고 살라.
-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.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.